

- 주요 뉴스: 연준 부의장,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준 도달까지 제약적인 통화정책 지속 예상
 - 세계은행과 IMF,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가
 - 영란은행, 일일 최대 국채매입 규모 2배로 확대. 시장 불안감 완화 목적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크림 대교 파괴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긴축기조 지속 전망 및 지정학적 위험 등이 영향

주가 하락[-0.8%], 달러화 강세[+0.3%], 금리[휴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반도체 관련주 약세 및 기업실적 관련 경제감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관련주 부진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라우전쟁 긴장 고조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4%, 0.3% 하락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
독일은 솔츠 총리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EU 공동채권 지지 등으로 15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428.7원, +15.2원) 1.1% 상승, 한국 CDS 상승

		10/10일	10/7일	전일대비			10/10일	10/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612.4	3,639.7	-0.75%	국채 금리 10y	미국	휴장	3.88%	-
	유럽	390.12	391.67	-0.40%		독일	2.34%	2.19%	15bp
	중국	2,974.1	휴장	-1.66%		영국	4.47%	4.24%	23bp
	일본	휴장	27,116	-	CDS 5y	한국	60bp	58bp	2bp
	한국	휴장	2,232.8	-		중국	108bp	104bp	4bp
	달러지수	113.15	112.80	0.31%	위험 지표	EMBI+	-	459	-
환율	유로화	0.9702	0.9744	-0.43%		VIX	32.45	31.36	3.48%
	엔화	145.72	145.25	-0.32%		WTI유	91.13	92.64	-1.63%
	위안화	7.1554	휴장	-0.55%	원자재	구리	343.1	338.7	1.30%
	원화	휴장	1,412.4	-		금	1,668.6	1,694.8	-1.5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부의장,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준 도달까지 제약적인 통화정책 지속 예상

-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통화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효과가 경제 전반에 작동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발언
- 아울러 상당한 금리인상과 금융긴축 등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또한 노동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일부 신호도 존재하나, 여전히 노동수요가 강하고 공급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다고 지적
- 한편 금리인상이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다고 언급.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라우 전쟁, 중국의 코로나 19 관련 경제 봉쇄 등의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연준의 정책기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
- 시카고 연은의 에반스 총재 역시 금리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인플레이션 수준을 신속하게 낮출 계획이지만, 현 상황에서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한 대응이나 과도한 조치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세계은행과 IMF,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가

- 세계은행의 맬패스 총재는 내년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평가. IMF의 게오르기예바 총재도 미국, 유럽, 중국이 각각 금리상승, 주택시장 불안 및 코로나 팬데믹 여파,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경제활동 둔화를 겪고 있다고 판단
- 이들은 신흥국 역시 금리상승, 자국 통화의 약세 등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 한편 JPMorgan의 제이미 데이먼 CEO는 미국이 6~9개월 후에 경기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예상

■ Allianz의 엘 에리언, 연준의 통화긴축이 경기침체 유도할 우려

- 연준의 정책기조 고려 시 일정 수준의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 다만 이러한 과정 이후에 미국 경제는 좀 더 나은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기대. 또한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뿐 아니라 정책신뢰를 제고한다고 부연

■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ECB의 과도한 정책대응을 경계. 점진적 접근을 권고

- 센테노 총재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조치는 정책 신뢰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공격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혜택보다 클 수 있다고 경고
- 반면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ECB가 향후 2~3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네덜란드 중앙은행 뉘 총재는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영란은행, 일일 최대 국채매입 규모 2배로 확대. 시장 불안감 완화 목적

- 긴급 채권매입프로그램을 통한 일일 최대 국채매입 규모를 50억파운드에서 100억파운드 규모로 늘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 이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 여건 개선 및 10/14일 해당 프로그램의 질서있는 종료를 기대한다고 부연

■ 유로존 10월 Sentix 투자자신뢰지수, '20년 5월 이후 최저. 경기침체 신호일 우려

- 10월 센틱스 투자자신뢰지수는 -38.3을 기록하며 전월(-31.8) 및 예상치(-34.7) 하회. 노르트스트림 관련 문제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겨울철 에너지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Sentix의 Manfred Huebner)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크림 대교 파괴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너지, 군사, 인프라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간 시설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국제 테러리스트와 같다고 비난

■ 일본,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입국 규제 완화. 관광업 활성화 기대

- 10/11일부터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중단되었던 68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재개. 하루 5만명인 입국자 상한도 폐지하고 자유 여행객 입국도 허용할 방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11 현지시각 기준)

- IMF 세계경제전망,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및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강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세계경제 전망, 새로운 패러다임 도래 예상 - Economist

(A New macroeconomic era is emerging. What will it look like?)

- 향후 많은 국가들은 기후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현재 유럽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하여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산업정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지출은 구조적인 증가가 불가피
- 결과적으로 '20년대와 '30년대의 근본 추세는 더 큰 정부(高부채)와 여전히 낮은 실질금리(고령화로 저축률은 높아지고 실질 이자율은 하락)로 귀결될 것이며, 이것은 중앙은행들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야기
- 인플레이션을 목표(2%)까지 낮추기 위해 경기침체를 초래할 정도의 과잉긴축이 필요할 수 있는데, 탈출구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하는 방법. 연준도 '24년 이러한 전략을 검토할 가능성

■ 미국 경제, 연준의 과잉 긴축에 따른 위험이 점증 - New York Times

(Tracking the coming economic storm - Has the Fed gone too far on interest rate?)

- 통화긴축이 실물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연준은 이러한 과거의 교훈을 망각. 최근 아파트 수요 정체, 해상운임 급락,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축소 등은 이미 연준의 조치가 충분함을 반증
- 이제 연준의 과소 대응에 따른 위험은 빠르게 줄고 있는 반면 과잉 긴축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금융위기의 위험을 확대. 영국 채권시장의 혼란은 국내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적 대혼란의 전조일 소지

■ 미국의 노동생산성 둔화,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필요성을 시사 - 블룸버그

(Labor Market Strength Is Also a Sign of Dysfunction)

- 최근 실물경제는 부진하지만 노동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이상 현상이 발생. '10년대와 동일한 노동생산성 증가를 가정하고, 상반기 노동시간의 증가율이 연율 2.5%임을 고려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 그러나 1/4분기와 2/4분기의 실제 연환산 성장률은 -1.6%, -0.6%에 불과
- 이는 노동시장 불균형으로 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악화되었기 때문. '23년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가 요구

■ **미국 금융시장, 금리인상 뿐 아니라 기업실적 둔화도 고려할 필요 - Financial Times**
(It's not all about a Fed pivot)

- 최근 증시에서는 연준의 금리경로 변화 기대 등으로 매수세가 다소 회복. 그러나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실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을 가능성. 기업실적은 수요약화, 임금상승 등으로 내년 둔화 예상. 주가 밸류에이션은 연준의 긴축정책 및 기업실적 둔화 전망 등을 고려 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추정
- 또한 통상적으로 저등급 채권가격은 경기침체기 동안 기업의 상환 능력 약화 우려로 부진. 일부에서는 현재 기업의 양호한 재무상황을 근거로 회사채 가격이 견조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 그러나 연준의 긴축정책으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 실적 둔화 전망 등으로 이러한 확대 흐름은 더욱 강화될 소지

■ **크레딧스위스 사태, 은행권 자본 확충 필요성이 재차 부각 - 블룸버그**
(Credit Suisse shows banks still need more capital)

- 크레딧스위스의 자본비율은 6.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개선되었고 여타 유럽은행들인 BNP Paribas, Deutsche Bank 등의 자본비율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우려 등으로 인해 주가 및 CDS가 취약한 모습
- 미국 4대 은행의 자본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15년 8.4%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6%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최근과 같이 시장이 취약한 시기에는 작은 이벤트가 큰 위기로 비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본을 더욱 확충할 필요

■ **미국 기업실적, 가격 인상에도 비용 압박 등으로 개선은 기대난 - WSJ**
(Price Increases Come Easily for Big Businesses, but Inflation Still Squeezes Profits)

■ **미국의 OPEC+의 감산에 대한 대응, 실효성은 제한적일 전망 - Financial Times**
(US has few good options in countering Opec oil cuts)

■ **미국과 유럽의 구인건수 감소, 통화당국의 고물가 통제 노력에 긍정적 - Financial Times**
(Transatlantic jobs market 'coming off the boil' as vacancy numbers drop)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